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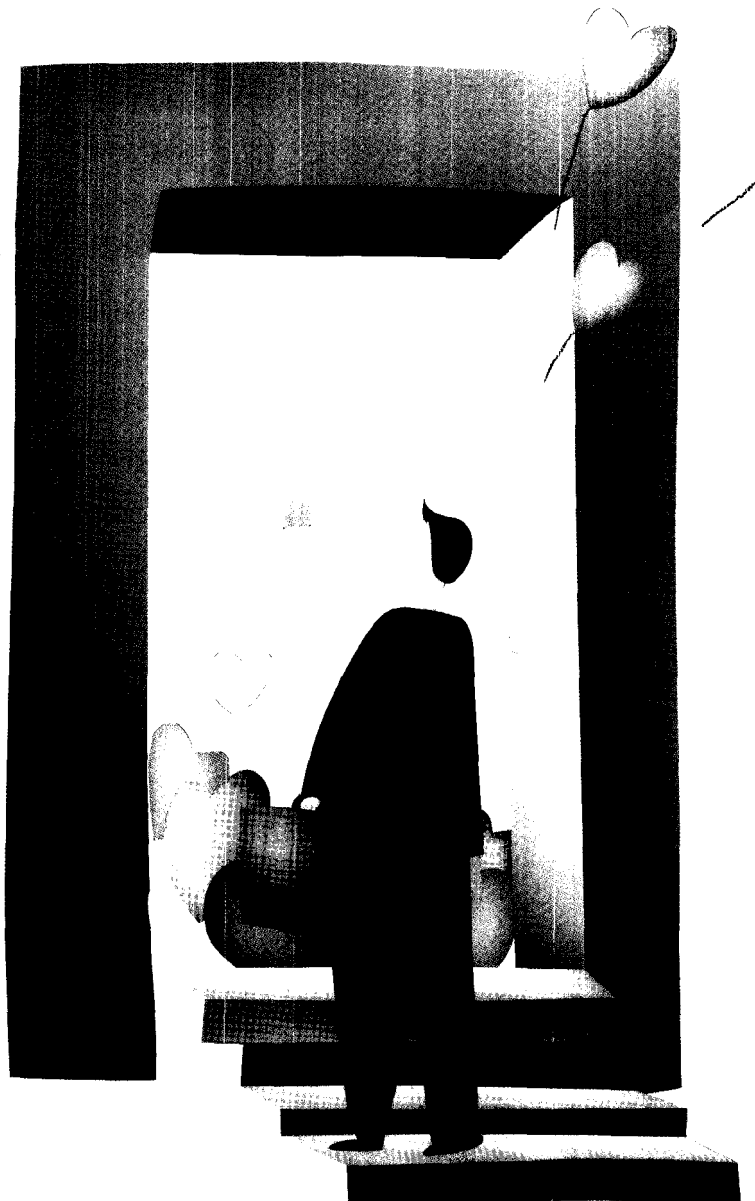
민간 의료기관 RNA 정량검사 시행에 대한 어느 감염인의 소리

RNA 정량검사는 혈중 바이러스 농도를 측정하는 검사로, 감염인의 투약과 치료에 필수적인 검사로써 감염인이려면 3~6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이다. 그동안 국가에서 시행해 왔던 RNA 정량검사가 2009년 7월 1일자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시행된다. RNA 정량검사를 민간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 감염인의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병원에 따라서는 감염인의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고려하여 특진료를 가산하지 않는 병원도 있으나 이는 극히 일부 병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어느날 레드리본센터를 찾은 감염인 한분은 3만 몇 천 원씩 3개월마다 주고 검사를 받으려니 생활이 너무 힘들어 다음부터는 6개월 후에 검사를 해달라고 주치의에게 부탁을 해 허락을 받았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 말을 하는 방문자의 모습에서 감염인의 그저 지나가는 말로 하는 푸념이 아니라 나도 저런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 보낸 공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다. 내용은 RNA정량 검사비를 특진비 명목으로 92,270원으로 인상하여 19,040원을 환급 처리하고 나머지 73,230원을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 정황상 현재 감염인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자 공지였다.

이 내용을 들으면서 갑자기 엄습해오는 허탈감에 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아니 이렇게 많은 금액을 어떻게 특진비라는 명분으로 대폭 인상시켜준다는 말인가 돈 없으면 검사를 받지 말라는 폭탄선언을 들은 것만 같았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책임 있는 곳에 전화로 문의를 하며, 다시금 감염인이라는 처지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문의내용에 답을 하는 정부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하



“왜 올바른 에이즈 정책과 감염인
들의 복지와 인권신장을 제대로
해달라고 했건만 올바른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감염인들을 사지
에 몰아넣고 있는가? 이번 정책을
시행하고 이에 경제적인 부담으
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감염인들
이 생기면 이는 전적으로 당신들
책임이다! 난 검사자체를 거부했
으면 했지 이렇게 부당한 특진료
를 부담하면서도 검사를 받지 않
겠다고...” 그들은 그렇게 목이 쫓
아지도록 외치고 있었다. 이렇게
많은 감염인들이 소리 내어 외치
는 이유는 RNA정량검사 부분 뿐
만이 아니라 더 이상 치료제의 효
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약재내성환
자들의 경우에도 똑같이 검사비의
부담이 가중 될 것이며 CD4(면역
수치검사)마지막에는 치료제의 본
인부담금도 가중될 것이다. 그래
서 감염인들은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살기위하여 소리치며 아우성치
는 것이다.

고, 누구 하나 정말 어렵게 생활 하시는 분들이 받을 경제
적인 고통은 염려해 주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다. 감염인
들은 정부관계자에게 배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40여만
원의 생계비를 가지고 쪽방, 고시원, 단칸 지하셋방에서 죽
지못해 살아가는 감염인들의 현실을 설명하고 본건의 시행
은 불가능하며 추후에 상황과약부터 하는 것이 순서 아니
겠느냐? 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는 대
담만 할뿐 이렇다 할 대답을 하지 않았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으며 서로 책임 떠넘
기기에 급급했다. 질병관리본부에 확인해 연락해주겠다는
말에 전화번호만 적어주고 통화를 끝냈으나 몇 천명의 감
염인의 정책을 감독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내용조차
모르고 있다니 우리 감염인들의 앞날이 불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서글퍼지기까지 했다. 오후에 전화가 걸려와 받아
보니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과 감염인들에
게 금전적인 부담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겠다는 답을 들었
지만 마음은 개운치 않았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많은 곳에 항의와 부탁을 하였으나
끝내 우리 감염인들과 감염인 단체들은 올바르고 정확한
답을 얻어내는 데는 실패하였다. 그래서 지난 6월 29일 질
병관리본부 정문 앞 에서 ‘HIV정량검사 민간병원으로 이
양하고 특진비라는 명목으로 검사비를 대폭 인상시켜준’
질병관리본부의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장에 참석했다.
장마로 인하여 오전에 비가 많이 내리 노심초사 했는데 다

행히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회견 장에 한 순간 먼저 도착해
피켓을 들고 달려달라고 소리치는 감염인들을 보니 순간
눈시울이 젖어왔다.

“왜 올바른 에이즈 정책과 감염인들의 복지와 인권신장을
제대로 해달라고 했건만 올바른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감
염인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있는가? 이번 정책을 시행하고
이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감염인들이
생기면 이는 전적으로 당신들 책임이다! 난 검사자체를 거
부했으면 했지 이렇게 부당한 특진료를 부담하면서도 검사
를 받지 않겠다고...” 그들은 그렇게 목이 쫓아지도록 외치
고 있었다. 그들은 노동의 댓가를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
은 노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녕 누가
저들의 목숨 같은 쌀값을 검사비라는 명목으로 빼앗아 병
원의 부를 축적하는 주춧돌로 삼으려 한다는 말인가?

기자회견과 촬영팀이 보는 앞에서 OO씨, OO씨, OO씨가
‘성명서와 규탄 기자회견문’ 낭독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온
국민에게 알리고 질병관리본부 측의 무능을 규탄했다. 기
자 회견 후 센터장과 대화시간에는 여러 시민단체와 잘못된
정책의 부당함과 여러 담당자들의 무능함을 비판했다.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으나 정부의 관계자에게 “특진비
등 HIV/AIDS환자들의 실상을 정확히 몰랐던 부분이 있었
다”면서 “의논 후 추이를 보고 비용부분을 해결하도록 노
력하겠다.”는 다짐을 얻어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감염인들이 소리 내어 외치는 이유는
RNA정량검사 부분 뿐 만이 아니라 더 이상 치료제의 효과
를 발휘하지 못하는 약재내성환자들의 경우에도 똑같이 검
사비의 부담이 가중 될 것이며 CD4(면역수치검사)마지막
에는 치료제의 본인부담금도 가중될 것이다. 그래서 감염
인들은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살기위하여 소리치며 아우성
치는 것이다. 4

민간 의료기관 RNA 정량검사 시행 시 본인부담금

구분	구성 내용	적용	금액
① 보험 수가	146,460원		
② 병원 기산료	보험수가 * 30%	146,460×30%	43,936원
③ 특진료	보험수가 * 50%	146,460×50%	73,230원
④ 보험급여 본인 부담금	(보험수가+병원기산료) * 10%	(① + ②)×10%	19,040원
환자 총 부담금	특진료+보험급여본인 부담금	③ + ④	92,270원
진료비 지원액	환급 : 본인부담금 급여분	④	19,040원
	환급불가 : 비급여 특진료	③	73,230원

2009.07.01 부터 시행 (에이즈중앙바이러스팀-1430호/2009.03.25)